에너지경제연구원
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

에너지정보통계센터

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

Issue 42 / 2007.12.19

□ 브라질, 우라늄수출 계획

○ 브라질 국영 원자력회사 INB는 '11년부터 우라늄 생산량을 4배 증가시키기 위한 우라늄 수출 프로젝트를 계획함.

- 동 프로젝트의 실행기한은 10년이며 약 $4억이 투자될 예정임.

- 브라질 Ceara주에 위치한 Santa Quiteria에서 '11년에는 800 톤을, 이후에는 1,200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동 계획으로 브라질은 약 1,000 톤의 우라늄 수출이 가능해짐.

- 현 브라질 법에 따라 우라늄의 생산 및 판매를 국영회사가 독점하며 수출을 금하고 있음.

○ 브라질은 세계 우라늄 매장순위 6위이나 생산부족으로 인하여 자국내 2개의 발전소에만 우라늄 공급이 가능함.

- IAEA는 이미 지난번 브라질 방문 시 브라질의 원자력 계획을 지지하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.

- 브라질 정부는 3번째 원자력발전소인 Angra III을 건설 중이며, 동 발전소는 '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연간 약 300 톤의 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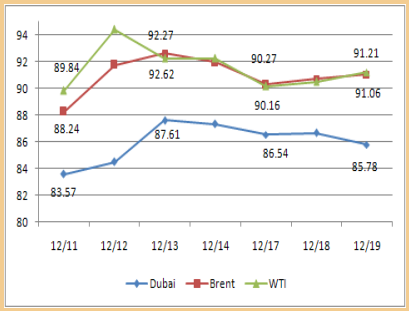
(Reuters, 2007.12.10)

NEWS
- 브라질, 우라늄수출 계획
-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 지속
- 중국, 이란 유전 개발에 $20억 투자
- 카자흐스탄-중국간 송유관 공사 시작
-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 고갈 경고
- 영국, 탄소 배출 실적 측정에 오류
- BP,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로 환경단체와 갈등
- EU-지중해 에너지 파트너쉽 강화

ANALYSIS
- IEA 2008년 세계석유수요 전망 상향 조정
- 중국의 원자력 확대 계획
- 러시아, 카스피해 가스관 협약 초안 승인

REPORT
-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(12월호)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ASIA, AMERICA & MIDDLE EAST

□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 지속

○ '07년 10월까지 중국의 신규 발전설비용량은 90 GW로 발전설비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의 증가율 13.7%보다 2.5% 포인트가 늘어난 16.2%를 보일 전망임.

- 이러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은 지난 5년간 계속된 것임.

○ 중국의 신규 발전용량 90 GW의 85%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이는 온실가스 감축합의문제로 발리 환경회의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.

-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1/3~1/4 수준이나 금년 온실가스배출은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IEA는 보고 있음.

○ 중국은 온실가스 문제 등을 감안, 수십억 달러를 원자력이나 수력,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단기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음.

- 중국 지속가능에너지재단은 11월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365개 총 11 GW 용량의 중소규모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였다고 밝혔으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.

- 중국의 에너지 공급능력상 석탄화력 밖에는 단기 수요 충족을 위해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○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는 세계 에너지 공급안정과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위협적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.

(Financial Times, 2007.12.11)

□ 중국, 이란 유전 개발에 $20억 투자

○ 중국 Sinopec은 이란과 공동으로 $20억 규모의 Yadavaran 유전개발 협정을 체결하였음.

-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

으며 동 협정 또한 이러한 흐름의 일부임.

○ 동 프로젝트에 따르면 Sinopec은 2단계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.

- 1단계에서 4년간 8만 5,000 b/d 생산, 두 번째 단계에서 3년간 10만 b/d의 생산을 할 것임.
- Sinopec은 사업수익의 15%를 요구했으며 앞으로 생산력 증대에 따라 수익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음.

○ Yadavaran 유전은 183억 배럴의 석유와 12조 5천 입방피트의 가스를 매장하고 있음.

- 이란은 세계 2위 석유 매장국이며 세계 2위 가스 매장국이지만 국제적 제재로 인해 석유, 가스 개발 사업이 지체되고 있음.

(Al-Jazeera, 2007.12.10)

□ 카자흐스탄-중국간 송유관 공사 시작

○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 송유관 2단계 공사가 개시됨.

- 2단계 공사는 이미 개통된 카자흐스탄의 아타수와 중국의 알라샨코우를 연결하는 960㎞의 송유관을 카자흐스탄 서부 유전지대 방향으로 761㎞ 연장하는 것으로, $10억의 비용이 소요돼 '09년 완공될 예정임.
- 2단계 송유관의 원유 수송량은 연간 1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이날 착공은 중국 국가주석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난 8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아타수-알라샨코우 송유관 연장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임.

(AP, 2007.12.11)

EUROPE & AFRICA

□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 고갈 경고

○ 독일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속도가 유지될 경우 러시아의 석유

매장량은 22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분석함.

-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'00~'04년간 6~11% 증가했으나, 최근 3년간 매년 2% 감소하는 추세임.
- 이는 서부 시베리아 지역의 석유 매장량이 고갈되고 있으며, 러시아 석유 기업들이 연 수익의 1%만을 생산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임.

○ 따라서 석유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부족과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 부재, 낮은 국내 에너지 가격 등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.

- 러시아는 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구축하여 유럽 소비국에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임.

○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의 석유자원은 최소 30년 생산이 가능하며, R/P(매장량-생산)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탐사 작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(UPI, 2007.12.11)

□ 영국, 탄소 배출 실적 측정에 오류

○ Oxford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항공과 선박, 국제교역, 관광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공식 수치에 포함하지 않았으며, 이를 합산하면 영국의 탄소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됨.

- Oxford 연구에 따르면 실제 영국의 탄소배출량은 19% 증가하였음.

○ 또한 영국 정부가 발표한 탄소배출 감축의 원인은 정부의 기후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며, 이는 '90년대 이후 발전원이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되었고 국가의 중공업이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.

- '50년까지 60%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요구됨.

○ 한편 베를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영국 BERR의 장관은 모든 가정에 공급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음.

- 영국의 해안선을 따라 총 7,000개의 풍력발전시설의 건설을 통해 현재

2 GW의 풍력발전 비중을 '20년까지 33 GW로 증대할 계획임.

(Guardian, 2007.12.10)

□ BP,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로 환경단체와 갈등

○ 영국 석유회사 BP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오일샌드 개발 사업에 15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갈등을 빚고 있음.

- 오일샌드에서 중질 타르의 원유를 추출하는 작업은 기존 원유추출방식에 비해 4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함.
-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앨버타주 삼림 아래에 있는 오일샌드는 새로운 석유로 각광받고 있고, 환경운동가들은 오일샌드 산업의 붐에 따라 '12년에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.

○ 유가 급등 후, BP는 과거 오일샌드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던 회사 방침을 바꿔 Husky Energy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'20년까지 20만 b/d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앨버타 오일샌드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.

- 이에 대해 캐나다 그린피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유 1배럴을 생산하는 데는 이산화탄소 29㎏이 배출되는데 비해 오일샌드에서 원유 1배럴을 추출하는 데는 이산화탄소 125㎏이 배출된다고 지적했으며, 앨버타주 방대한 삼림의 식물 생태계와 토지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함.

(Guardian, 2007.12.8)

□ EU-지중해 에너지 파트너쉽 강화

○ 사이프러스 Lamassol에서 12월 17일 5차 유럽-지중해 에너지장관 회담이 개최됨.

- 이번 회담의 목적은 '08~'13년 동안 에너지부문의 유럽-지중해 협력을 도모하고, 에너지안보 및 지속가능 에너지의 목표 실현을 위한 것이며, 에너지부문 협력을 위한 주요 계획 및 이에 관련된 제안들이 발표됨.

- EU 집행위원회는 금번 회담에 해당지역의 주요 에너지기업들을 초청함.

○ 지중해에너지기구(OME)는 '88년 EU집행위원회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며, 회원국간의 협력촉진과 에너지 수요예측 및 에너지관련 연구, 국제 회의개최 등을 수행함.

- OME는 Botas, DEPA, EDF, 이집트석유회사, SUEZ-Electrabel, ENEL, ENI, 리비아전력회사, GDF, Sonatrach, Total 등 30여개의 주요 에너지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음.

(Europétrole, 2007.12.10)

1. IEA 2008년 세계석유수요 전망 상향 조정

□ 개요

○ IEA는 12월 Oil Market Report에서 2008년 세계석유수요가 2007년보다 2.1백만 b/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- 이는 전월 전망치보다 20만 b/d 상향조정한 것이며 중동의 석유수요증가를 요인으로 꼽음.

□ 세부내용

○ IEA의 이번 상향 조정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들의 석유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임.

- IEA는 현 수준의 고유가가 내년에 선진국의 석유소비는 계속 압박하겠으나 신흥경제국들의 최종수요 증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.
- 이러한 근거로 신흥경제국 정부의 석유보조금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석유제품 최종소비자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- 미국과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의 '08년 석유수요는 '07년 대비 1.3%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개도국의 석유수요는 4%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○ 비 OPEC의 내년 석유공급은 1백만 b/d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.

- IEA는 세계 석유재고가 이미 5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OPEC 추가증산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함.
- OPEC은 '08년 세계석유수요가 '07년 대비 1.3백만 b/d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IEA와는 상이한 견해차를 보여줌.
- 미국의 경제문제로 세계 석유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OPEC은 예상하고 있으며 원유공급은 현재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함.
- OPEC은 5일 개최된 장관급 회담에서 이러한 근거로 이미 원유생산 동

결을 결정한 바 있음.

□ 시사점

○ WTI와 브렌트 원유가격이 12월 한때 배럴 당 $80대로 하락하면서 약세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OPEC의 생산동결 결정 이후 다시 $9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.

○ 향후 국제유가 향방을 두고 다양한 각도의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과 중동 등과 같은 신흥경제국들의 급성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유가 강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신용경색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가 약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.

○ 세계 원유생산 한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며 효율성 개선과 절약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.

(Financial Times, 2007.12.14)

2. 중국의 원자력 확대 계획

□ 개요

○ 중국은 에너지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증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○ 중국의 원자력 발전 증설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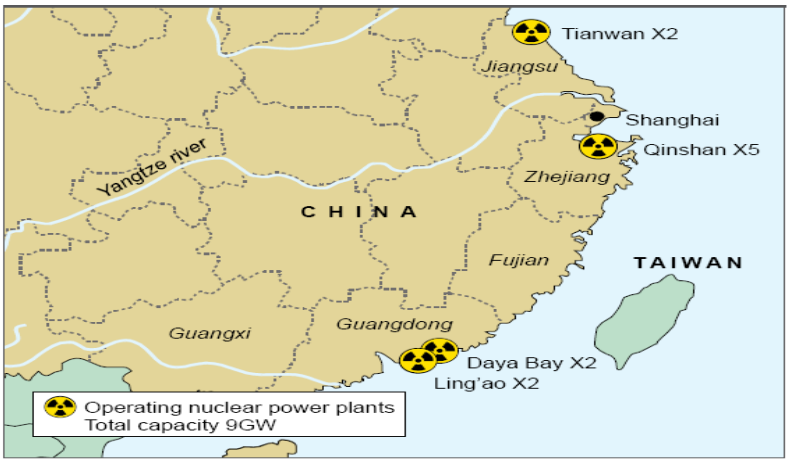
-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워회(NRDC)는 최근 신규 원자력 확대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발표함.
-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악화되는 환경오염에 직면하여 '05년에 공격적인 원자력 목표를 설정하였음.

- 현재 중국은 7 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설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진행 상태는 매우 느린 상황임.
- '07년 초,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2개의 가압수형 원자로(PWR)인 Tianwan 발전소(장쑤성 소재)가 가동을 시작하였음. 이로 인해 중국은 11개의 원자로, 9 GW를 확보함.
- NDRC의 계획에 따르면, 원자력 발전은 '10년 12.5 GW로 증가하며 '20년 45 GW로 증가할 계획임.

○ 중국 원자력 프로젝트 현황

- 8개의 원자로 7.9 GW가 현재 건설중에 있음. 4개는 기존 부지이며 4개는 신규 부지임.
- 또한 9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부지 조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. 총 46개 원자로(45 GW)가 동 부지에서 건설될 계획임.
- 해당 지역은 저장성, 산둥성, 푸젠성, 광둥성, 광시성이며, 대부분의 원자로는 '20년전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임.
- 11월 초, 중국과 러시아는 Tianwan에 1 GW WER의 원자로 2기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음.
- 중국은 제 2, 3 세대 PWR를 미래 원자력 프로젝트로 채택함. 이는 자국 기술 선호 정책에서부터 일부 외국기업(일본의 Westinghouse, 프랑스의 Areva, 러시아의 Atomstroiexport)만이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됨을 의미함.
- 장기적으로 Westinghouse와 Areva로부터 제3세대 원자로 기술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음.
- Westinghouse는 7월 4개의 AP-1000 가압경수로를 수주하였음. 2개는 저장성 Sanmen Kuotangshan에, 나머지는 산둥성 Haiyang임.

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



- 프랑스 Areva는 11월 중국 CGNPC와 2개의 PWR 건설($118억) 계약을 체결하였음. CGNPC는 Areva의 우라늄 수출 자회사인 UraMin의 지분 35% 인수에 합의함.
- 중국은 연간 우라늄 소비는 1,600 톤이며, 이중 절반을 수입에 의존함. 호주는 '10년경부터 중국에 우라늄을 수출할 계획임.
- 중국 CNNC는 2007년 8월 Century City와 몽골에서의 우라늄 광산 시굴 계약을 체결하였음. 또한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Kazatomprom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에서의 우라늄 생산을 통해 중국으로 공급할 계획임.

□ 시사점

○ 증대하는 에너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를 추진하는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선진기술 도입과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주력하고 있음.

(Argus Asia Gas & Power, 2007.11)

3. 러시아, 카스피해 가스관 협약 초안 승인

□ 개요

○ 러시아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가스관의 협약 초안을 승인함.

□ 세부내용

○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산업에너지부와 외교부가 주체가 되어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함.

- 협상이 완료되면 참여국가는 카스피해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협력 협정서에 서명하게 됨.
- 협정서 초안에 따르면 각 국가는 기존 협정의 실행을 보증하며 새로운 공급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증하게 됨.
- 러시아-투르크메니스탄 사이의 기존 협정('03년 4월 10일)에 따르면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-카자흐스탄 국경에서 연간 최대 100억 ㎥를 구매하게 됨.
- 추가된 새로운 공급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식 기관을 통해 공정가격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, 각각의 국경에서 연간 최대 총 200억 ㎥의 가스를 구매하게 됨.
- 또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과하는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 가스에 대해 통과료를 지불하고 수송과정을 관할하게 됨.

○ 협력 초안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연간 최대 100억 ㎥의 가스공급을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과하는 연간 100억 ㎥의 가스수송 의무를 지게 됨.

- 또한 카자흐스탄은 연간 최대 200억 ㎥의 가스수송이 가능하도록 수송능력을 확충해야 하며 카자흐스탄 가스를 시장가격으로 러시아-카자흐스탄 간 국경에서 연간 최대 100억 ㎥를 공급토록 함 .

□ 시사점

○ 러시아가 주도하는 카스피해 가스파이프라인 협력 초안은 중앙아시아 산,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을 매개로 하는 중국-투르크메니스탄 간 가스거래 차단을 목적으로 함.

○ 러시아가 주도하는 협력 초안은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여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반발이 예상되나 경제적 요인보다는 국제정치적 요인이 협상의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(Interfax, 2007.12.12)

1.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(12월호)

□ 개요

○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12월 11일 발표하였음.

□ 세부내용

○ 세계 석유수급 전망

- '07년 4/4분기 석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0만 b/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석유 소비증가와 비OPEC의 소량 증산, 낮은 잉여생산력,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인해 '08년 석유수급 상황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됨.

세계 석유수급 전망

(단위: 백만b/d)

구분	2006	2007	2008
수요(A)	84.73	85.78	87.16
OPEC 공급(B)*	35.29	34.99	36.57
비OPEC 공급(C)	49.30	49.87	50.82
공급(B+C)	84.60	84.86	87.39
재고변동**	-0.13	-0.92	0.23

* OPEC 공급은 앙골라 포함, OPEC 12개국 공급량
**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- 고유가로 인해 최근 몇 개월간 일부 국가에서의 석유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미국의 4/4분기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1만 b/d 감소하였음.
- 이 소비 감소분은 '07년 상반기 석유 소비가 17만 b/d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임.
- OPEC은 지난 회의에서 최근 원유가격 하락세와 수요하락 전망, 일부 OPEC국가의 증산을 언급하면서 원유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.

- IEA는 OPEC이 '08년 말까지 원유생산능력을 130만 b/d 증대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OPEC의 잉여 생산량은 세계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.
- 비OPEC의 '08년 석유생산은 전년대비 90만 b/d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, 이 증가분은 멕시코, 영국, 노르웨이, 이집트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키는 수준으로 분석됨.
- '08년에는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에서의 증산이 예측되며, 이는 비OPEC 생산량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함.

○ 유가 전망

- 국제 평균유가는(WTI 기준) '07년과 '08년에 각각 $72.05/bbl, $85.0/bbl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'06년 미국 경제성장률 2.9%에 비해 '07년, '08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.1%, 1.8%로 전망되고 있으며, EIA는 이러한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세가 현재의 고유가 추세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함.

○ 미국 석유수급 전망

- '07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0.4% 증가한 2,080만 b/d, '08년에는 1.1% 증가하여 2,100만 b/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의 '07년 석유생산은 전년보다 0.2% 증가한 510만 b/d가 될 전망임.
- '07년 10월 생산을 개시한 Atlantis 심해 및 Thunderhorse 플랫폼에서의 증산으로 '08년 석유 생산량은 2.3% 증가한 520만 b/d에 이를 것으로 보임.

○ 천연가스 수급 전망

- '07년 총 천연가스 소비는 올해 초 가정, 상업, 발전부문의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5.0% 증가한 62.43 bcf/d을 기록할 전망임.
- '07년 산업 부문 천연가스 소비는 0.7% 하락했지만 달러 약세와 천연가스 다소비 상품수요의 증가로 인해 '08년 산업 부문의 천연가스 소비는 0.8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- 미국의 '07년 총 천연가스 생산량은 2.1% 증가한 51.88 bcf/d, '08년에는1.6% 증가한 52.72 bcf/d를 기록할 전망임.
- 걸프만 심해의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의 신규 건설 및 신규가스전 개발로 인해 Lower-48 육상가스전과 멕시코만에서의 생산량이 '08년에 각각 1.0%, 5.1% 증가할 전망임.
- '07년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35% 증가한 22.2 ㎥가 될 전망이며, '08년에는 19% 증가한 26.6 ㎥를 기록할 전망임.

○ 천연가스 가격 전망

- '07년 11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$7.31/Mcf으로, 이는 동절기에 최고에 달해 '08년 1월에는 8.22/Mcf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'07년 및 '08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각각 $7.21/Mcf, $7.98 /Mcf로 예측됨.

○ 전력 수급 전망

- '07년 총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1.9%, '08년에는 0.3% 증가할 전망임.
- '07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은 전년대비 2.1% 상승한 10.6¢/kWh로 전망되며, 가정용 전력 가격 '08년에 1.7% 상승할 전망임.

○ 석탄수급 전망

- 총 석탄소비는 '07년 11억 3,710만 short ton, '08년 11억 3,17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임.
- 석탄소비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전력부문의 석탄 소비는 '07년 2.2% 상승할 전망이나, 가스 화력발전 및 수력발전의 증가로 '08년에는 0.5%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.
- '07년 석탄생산은 전년대비 1.0% 감소한 11억 5,140만 short ton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, '08년에는 0.5% 증가한 11억3,17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임.

□ 시사점

○ 유가 상승으로 인해 최근 일부 국가에서 석유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
- 특히 미국의 4/4분기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1만 b/d 감소하였으며, 이 감소분은 '07년 상반기 석유 소비가 전년보다 17만 b/d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임.

○ EIA는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세로 인해 현재의 고유가 추세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함.

- 미국 경제성장률은 '06년 2.9%였으나 '07년, '08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.1%, 1.8%로 전망됨.

(EIA, 2007.12)